

배포 2026. 5. 13.(수) 11:00 / 즉시 보도 가능합니다.

한국토지주택공사(LH), 「2026 대한민국 기계설비전시회」 서 AI 기반 공동주택 기계설비 기술 선보인다

- 13일부터 3일간 「2026 대한민국 기계설비전시회」 서 AI·스마트 특별관 운영
- ▲LH 주택도시역사관 ▲지능형 탄소중립 설비 ▲스마트 주거서비스 등 3개 관 구성
- 스마트 기계설비 기술 도입·확산과 산·학 협력으로 지속가능한 주거환경 제시

- 한국토지주택공사(LH)는 13일부터 3일간 서울 COEX에서 열리는 「2026 대한민국 기계설비전시회」에 'AI·스마트 특별관'을 마련하고, AI 기반 탄소중립 공동주택 기계설비 기술을 선보인다고 밝혔다.
- 「2026 대한민국 기계설비전시회」는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등이 주최하고, 국토교통부·LH 등이 후원하는 국내 대표 기계설비 전문 전시회다. 올해는 'AI로 융합하는 K-기계설비'를 주제로 열린다.
- LH는 지난 2018년부터 참가해 ▲미세먼지 특별관('19년) ▲탄소중립 특별관('22년) ▲'ESG 특별관('23년) ▲LH 설비기술 특별관('24년) 등을 운영하며 공동주택 설비 기술의 발전 방향을 제시해 왔다.
- LH는 올해 'AI·스마트 특별관'을 운영한다. 특별관은 ▲LH 주택도시역사관 ▲지능형 탄소중립 설비 ▲스마트 주거서비스 등 총 3개 관으로 구성됐는데, 공동주택 기술 변화의 흐름을 쉽게 이해하고 체감할 수 있도록 주거의 '과거·현재·미래'를 연결해 보여준다.
- 'LH 주택도시역사관'에서는 한국전쟁 이후 초기 공공주택 공급부터 1기 신도시, 혁신도시 그리고 현재의 3기 신도시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 공동주택의 변화 과정을 사진과 영상으로 소개한다.
- '지능형 탄소중립 설비'에서는 AI 기반 난방 수요 예측 제어*, 스마트 통합배관 시스템, 공기열 히트펌프 등 에너지 효율 향상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핵심 기술을 소개한다.

* AI 기반 난방 수요 예측 제어 : 원격검침 데이터 기반, 실시간 난방수요량을 정밀 예측하여 열 공급 효율 최적화 및 자동 진단을 통해 고장 전 예방 조치

○ ‘스마트 주거서비스’에서는 LH와 가전社(LG·삼성) 플랫폼을 연동한 LH 스마트홈 플랫폼, 가전구독 서비스, 스마트 욕실, AI 수질관리 시스템 등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생활밀착형 기술을 소개한다.

□ 특별관 운영과 더불어 오는 14일(목)에는 ‘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 실증실험 연구’ 및 ‘공동주택 방염대상물 지정 제도의 적정성 연구’를 주제로 세미나 발표도 진행한다.

□ 한편, LH는 13일(수) COEX 전시관에서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와 기계설비 분야의 기술력과 시공 품질을 높이고, 투명한 건설문화 정착을 유도할 수 있도록 업무협약을 체결하기도 했다.

□ 오주현 LH 공공주택본부장은 “공동주택 기계설비는 에너지 절감과 주거품질을 동시에 좌우하는 핵심 요소”라며, “AI와 스마트 기술을 기반으로 탄소중립을 실현함과 동시에 국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주거 품질 향상을 위해 관련 기술 개발과 적용을 지속 확대해 나갈 것”이라고 밝혔다.

담당부서	공공주택설비처	책임자	팀 장	김기수	(055-922-4101)
		담당자	차 장	양동현	(055-922-4106)



* 서울 COEX에서 열리는 「2026 대한민국 기계설비전시회」에 마련된 LH 'AI·스마트 특별관' 전경 (정면)



* 서울 COEX에서 열리는 「2026 대한민국 기계설비전시회」에 마련된 LH 'AI·스마트 특별관' 전경 (측면)